

20세기 후기 중국 공상과학소설 속 비극성에 관한 고찰

권혜진**

<目次>

- | | |
|------------------------------|----------------------------|
| I. 서론 | III. 전원 목가적 낭만과 神話를
찾아서 |
| II. 자연시대의 종말과
유토피아에 관한 一考 | IV. 우주평형의 困惑 |
| | V. 결론 |

I. 서론

1980년대는 중국 공상과학소설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며 문학의 독립성이 주요한 문제로 대두된 시기이다. 특히 중국 공상과학소설이 포스트공리주의 시대의 막을 열었다는 평가처럼 당시 공상과학소설의 순문학 계열 문학상 수상, 傷痕 문학과 유사한 정서를 공유하는 작품의 대두, 기성세대의 가치체계를 전복하고자 하는 작품 등의 대두는 분명 답보 상태에 놓여있던 중국 공상과학소설의 한계를 타파하는 행위에 비견될 수 있다. 그런데 1980년대와 1990년대 중국 공상과학소설을 비교해 보면 1980년대 작품은 적극적인 개혁개방의 흐름에 노출되었던 1990년대 작품

* 본 논문은 2018년 한국연구재단 학문후속세대 박사후국내연수 사업의 수주 하에 연구되었음.

**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경향과는 명확한 대척점에 놓여 있었다 말해야 할 것이다. 1980년대 중국의 공상과학소설이 미래성(futurity)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면¹⁾ 1990년대는 사회주의적 이상과 유교적 전통 가치관이 사라지고 다원주의적인 가치관이 관찰되기 때문이다. 이에 1990년대는 중국 공상과학소설의 새로운 문학적 경향을 알린 시발점으로서 중시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 이래 중국 공상과학소설은 과학지식 전달을 위한 계몽 수단이라는 인식 그리고 서구에 의해 수입된 사상과 관념을 향한 정치적 행위라는 꼬리표를 쉽게 떼어 내지 못하고 있다. 물론 1990년대부터 중국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이 증가한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 같은 견해도 무리는 아니지만 인터넷의 검열과 통제가 날로 강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국가나 체제를 비판하는 스토리가 여전히 금기대상이라는 사실, 그리고 상당수의 중국 공상과학소설이 인터넷을 발원지로 삼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오늘날 중국 공상과학소설의 부상을 단순히 정치적 입장으로 귀결하는 데에는 모자람이 있다.

실제 韓松²⁾이나 吳岩³⁾의 견해가 말해주듯이 정작 대부분의 중국 공상과학 작가들은 중국 공상과학소설의 세계적인 굴기 현상을 국가적 담론차원으로 끌어들이는 데 큰 관심이 없다. 오히려 이들은 중국 공상과학소설의 독자적인 문체에 무게를 두고 그들의 내면적 가치관 나아가 그것이 지니는 사회 문화적 파급력에 보다 무게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과학 세계와 세계화의 상호 관계를 이해하려면 중국을 사례로 연구해야 한

1) Paula Iovene, *Tales of Futures past: Anticipation and the Ends of Literature in Contemporary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4, 48쪽.

2) “과학과 기술, 현대화는 모두 중국 문화의 특징이 아니다. 그들은 모두 외래 사물이다. 만약 그것을 전부 수용한다면, 우리는 괴물이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와 서구 진보관념이 공존하는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Han Song, “Chinese Science Fiction: A Response to Modernization”, *Science Fiction Studies*, 40, 1, (2013), 15-21쪽.

3) 吳岩은 중국의 대표적인 공상과학소설 비평가이자 작가이다. 그는 중국 공상과학소설의 독특성이 타자로서의 서구가 충만한 호기심으로 중국을 바라보는 태도와 시선으로부터 생성된다고 보았다. 이에 중국을 “長城星球”로 칭한다.

다는 시각⁴⁾, 그리고 當代 중국 공상과학소설이 철학의 근본적 사유에 대한 문제 제기로 과학 본연에 대한 질문에 이르도록 한다는 통찰력 있는 주장들과도 맞닿아 있다.⁵⁾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과학에 대한 인식이 재정립되기 시작한 사실은 당시 중국 사회를 풍미했던 니체 신드롬 현상으로도 뒷받침되고 있다. 이는 과학을 세계를 해석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유래하는 예술의 일종으로 파악했던 니체의 사례처럼, 니체의 생태학적 자연관이야말로 당시 중국인을 지배했던 문화적 코드를 파악하는데 있어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요컨대 1990년대 이래 중국 공상과학소설은 공시적 문화 요소에 대한 필연적인 영향 속에서 다양한 측면을 개괄해 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 공상과학소설에 대한 국제적 관심 속에서도 중국 내 관련 연구는 주로 초기 晚晴 작품에 집중되어 있고 작품 자체를 두고 본다면 오히려 서구 학계에서 활발한 연구를 진행해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혹자는 이 같은 현상을 두고 當代 중국 공상과학소설을 “중국 민족의 발전, 사회 변혁과 문화 혁신에 대한 100년의 역정”⁶⁾으로 정리하며 중국 공상과학소설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을 감추지 못한다. 하지만 만약 중국 공상과학계가 오늘날 그들이 직면한 난관을 극복하고 내일의 발전을 모색할 수 있다면 과연 그 해결의 실마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본 연구자는 유동적인 개인, 이로 인해 경계를 넘나드는 오늘날 문학의 성질 그리고 중국이 가진 특수한 문화 사회적 배경을 고려해 홍콩과 인근 대만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통합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만 한다고 여기고 있다. 이 같은 과정은 중국 공상과

4) Tidhar Lavie, *Science Fiction, Globalisation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oundation: The International Review of Science Fiction, vol.89, 2003, 93-99쪽.

5) 중국 공상과학소설이 입체적인 인물이나 줄거리의 측면에 존재하는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계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원인에는 哲理 생성으로 인한 독특성이 자리하고 있었다. 姜維端, 〈這麼多年, 中國科幻走上了一條和西方主流科幻不同的道路?〉, 《澎湃新聞》, 2017年8月18日.

6) Song Mingwei, “Variations on Utopia in Contemporary Chinese Science Fiction”, *Science Fiction Studies*, 40.1,(2013), 98-99.

학소설의 문학사적 위치와 의미를 반추하고 중국 공상과학소설에 드러나는 한계 및 의의를 파악하기 위한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중국 대륙에서 발표된 수많은 중국 공상과학소설 관련 서적 속에서 臺灣과 홍콩 작가의 작품을 찾아볼 수 없는 점이 많은 아쉬움으로 지적되어 온 바,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출현한 작품들의 공시적 고찰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의는 21세기 新生代 중국 작가들이 이룩한 공상과학소설의 의의와 가치를 밝히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간주될 수 있다.

이에 본 논의에서는 20세기 대표 중국 공상과학소설 작가로 인정받는 王晉康의 《亞當回歸》(1993)와, 何夕의 《盤古》(1996)와 《田園》(1999) 그리고 臺灣 공상과학소설의 개척자로 불리는 張曉風의 《藩渡娜》(1967), 張系國의 《超人列傳》(1968), 黃海의 《銀河迷航記》(1979)를 대상으로 이들 작품 속 사상적 골격을 이루는 자연에 대한 인식을 도출함으로써 작가가 그에 상응하는 인간과 자연의 생태학적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 고자 했는지 그 양태를 고찰하고자 한다.⁷⁾ 다소 긴 여정이 될 테지만 향후 중국 공상과학소설에 대한 국내의 독자적인 연구를 풍성히 전개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감으로 본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7)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중국 공상과학소설은 이미 세 차례의 황금기를 경험했다. 반면 臺灣은 1960년대 말에 이르러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상과학소설 작품이 발표되었지만 시작부터 예술, 사회비평 혹은 인생 및 미래 광경에 대한 특징을 논하는 등 다양한 주제의식을 보여주었다. 이는 중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의 작품에서나 발견되는 특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양안의 사회 경제적 발전 흐름을 고려해 1990년대 중국의 작품과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臺灣의 작품을 대상으로 삼는다. 黃海著, 《臺灣科幻薪火錄(1956~2005)》, 五南圖書出版社公司, 2007, 226-236쪽 참조.

II. 자연시대의 종말과 유토피아에 관한 一考

臺灣의 공상과학소설 분야는 1960년대에 이미 그 명칭과 정의를 둘러싼 변증적 논의를 마쳤고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성숙한 환경 조성으로 하나의 독자적이고 체계적인 학문 영역으로 자리매김하는 등의 큰 성과를 일궈냈다.⁸⁾ 특히 1960년대는 臺灣이 경제나 사회 분야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룩하며 공업화, 상업화로의 빠른 전환을 이루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비인격 관계’라는 ‘보편주의’와 경제적 ‘이익’ 중시로 인한 존재의 본질 경시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시기⁹⁾라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張系國은 臺灣에 공상과학소설을 알린 중요한 인물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미국에서 전기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을 정도로 전기와 컴퓨터 방면에 정통하였고 유년 시절부터 다양한 장회소설을 탐독하는 등 공상과학소설 작가로 거듭나기에 훌륭한 배경을 갖추고 있었다.

그 중 《超人列傳》(1968)은 張系國이 잡지 《純文學》에 발표한 첫 공상과학소설로서 당시 科幻銀河獎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킨 작품이다. 혹자는 張系國의 상기 작품을 두고 ‘왜 중국 작가는 서방의 전통에 영감을 구걸 하는가?’라며 그 원인을 서구 문명의 이분법적 관념에서 찾았는데¹⁰⁾, 이처럼 《超人列傳》은 주체/객체, 감성/이성, 인간/자연이라는 철저히 근대적 사유를 근간으로 하고 있음이 작품 속에 면면히 드러나 있다. 이야기는 38세의 물리학자 斐人杰이 뇌 이식술을 앞두고 진정한 인간으로서 일생 마지막 이발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그것은 초인¹¹⁾으로서 斐人杰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있지만 그 스스로가

8)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할 것. 黃海著, 같은 책, 2-38쪽.

9) 許達然, 《苦悶與象征:六〇~七〇年代臺灣社會和文學》, 臺灣文津出版社, 2007, 15쪽.

10) 黃海著, 앞의 책, 41쪽 재인용.

11) 본문에서는 초인에 대해 ‘육체 없이 정신만 가진’ 사람으로 정의한다. 또한 초

정신으로부터 인간의 본질적 가치를 찾는 철저히 서구 정신문화에 고착된 인간임을 직설하는 장면이기도 하다.

몇 시간 후에 그는 이 몸뚱이를 떠나게 된다. 하지만 그래도 이 몸뚱이 안에서 38년을 살았기에 그것을 자기 자신으로 여기는 삶에 익숙하다. 이제 그의 육체는 초인관에 진열되어 사람들이 감상하게 될 것이다. 박물관 속 박제된 표본들처럼 말이다. 하지만 그 자신은, 그라는 진정한 존재는 여전히 살아있을 것이다. 하나의 기계 안에서 살게 될 테니까.¹²⁾

斐人杰은 “측량할 수 있는 것만이 합리적이며, 합리성만이 존재할 수 있다!”는 문구를 인류의 신조로 삼고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자는 이유 불문 ‘反理性 치료원’에 입원해야 하는 극단적인 ‘과학의 계몽 시대’를 살아간다. 이에 따라 그의 세계에서 인류의 열악성이 여전히 보편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 무지함, 권위 숭배와 각종 반이성적인 행위나 대상은 모두 어두운 세력으로서 인류의 찬란한 앞날을 가로막는 방해물로 규정된다. 식사, 수면, 의복 착용, 목욕, 운전, 운동 등과 같은 인간의 삶 속에서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여겨져 온 모든 자연적 일상 행위도 예외는 아니다.

“.....예로부터 종교가와 철학가의 노력은 모두가 인류의 야만성이라는 저급한 욕망을 극복하고 이성의 사유능력을 확장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네. 불교가 왜 좌선을 통해 번뇌로부터 해탈하려고 했을까? 바로 카르마 즉, 생로병사라는 네 가지 고통을 받는 육체를 소멸함으로써 불생불멸의 열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였다네. 중국의 노자도 말하지 않았던가? 우리에게 커다란 근심이 생기는 것은 육체가 있기 때문이며, 육체가 없다면 어찌 근

인은 가장 이성적인 사람으로서 야만적 욕망(獸性)도 없고 성적 고뇌도 없는 사람으로 묘사되는 만큼 우리는 그를 탈자연화된 인간이라 이야기할 수 있다.

- 12) 現在, 他的驅殼就要被陳列在超人館裏, 供人觀賞, 像博物館中那些剝製的標本一樣。而他自己, 他真正的自己, 却仍然活着, 生活在一架機器裏...; 張系國, 《超人列傳》, 姜雲生主編, 《臺灣科幻小說大全》, 福建少年兒童出版社, 1994, 204쪽.

심하리? 라고 말일세. 육체는 인류의 진보가 최고조에 도달하는 데 있어 커다란 장애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벗어나야만 하네. 하지만 인간은 또 굳이 이 못난 육체를 벗어나지 못하지. 그래서 정신 육체 이원론을 발명해야 했던 걸세. 육체가 죽는다고 해도 정신은 여전히 오래도록 존재하니까.”¹³⁾

23세기에 이르러 핵전쟁 위기가 흔적 없이 사라지고 세계 인구가 합리적으로 억제됨에 따라 기아와 빈곤도 완전히 사라지는 ‘大同’ 국면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초인의 공로로 기술된다. 하지만 중국의 불교와 도가에 대한 대표 초인의 무지함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작가는 분명 이들의 관념에 호의적이지 않다. 때문에 과학의 진리 추구만을 유일한 목표로 여기는 斐人杰 앞에 놓인 역경은 예견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자신의 행복과 안위에 무관심한 것으로 묘사되는 斐人杰의 행위는 일종의 ‘희생’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인류를 위한 공헌이자 과학자로서 마땅히 이행해야 하는 위대한 사명으로 서술되고 있다. 이 순간 斐人杰이 전력을 다해 그의 천재성을 발휘하고자 하는 욕구 역시 그가 속한 세계에서 제외되어야 할 열등한 자연적 욕구라는 사실을 모두가 간과한 채 말이다.

작품은 주인공의 자기 효능감과 직업의식으로 인해 한층 더 진지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러나 비장한 사명감으로 충만한 斐人杰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100년간의 우주 순찰 업무였다. 다소 돌발적이기까지 한 이 같은 상황 설정은 사면초가에 처한 주인공의 비극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해 내고 있다. 그리고 애써 당혹스러운 감정을 극복하고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책임감으로 무장한 주인공에게는 다양한 초인 - 방

13) 從古至今宗教家、哲學家的努力，都是沒法克服人類獸性的低級慾望，擴展理性的思維能力。你想佛家爲甚麼要練打坐求度脫呢？就是要消滅這造業種因受盡生老病死四苦的肉體，達到不生不滅的涅槃境界。咱們中國的老子不是也說過：吾所以有大患者，爲吾無身，吾有何患？可見很就以前人類裏頭聰明的就知道，肉體是人類進展到更高境界的一大障礙，必須設法擺脫的。可是人又偏偏脫不掉這臭皮囊，所以只好發明出精神肉體二元的理論，以爲肉體雖死，精神仍可存在。張系國，〈超人列傳〉， 앞의 책， 219쪽.

해하지 말라는 문구로 자신을 문전박대하는 몰인정한 초인(不通人情), 아름다운 산수 자연환경 조성과의 인간의 육체와 유사한 형상을 고안해 함으로써 인간과 다름없는 생활을 영위하는 초인, 밀실에 마릴린 먼로의 모습을 한 로봇을 숨겨 두고 성욕을 채우던 초인 등 - 이 영위하는 삶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만약 ‘자연’이 인공성의 영역을 넘어선 인간에게 주어진 직접성을 표상하는 개념¹⁴⁾이라면, 초인은 일종의 인간의 노동의 생산물로서 斐人杰이 다양한 초인들로부터 낯섬의 감정과 소외를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 모른다. 하지만 그가 느끼는 소외감은 초인이라는 것이 ‘부자연’스럽고 ‘비정상’적인 일이 아닐까 라는 의심에서, 초인의 행위와 사유를 ‘미치광이’들의 ‘문명병’으로 규정하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을 향해 치닫는다. 결국 斐人杰은 인류 전체가 절멸될 순간 평범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손녀의 아들과 딸을 몰래 우주로 데려가 새로운 창세기를 주도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작가의 희망과 굳건한 믿음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작품은 ‘낯선 아름다움’¹⁵⁾을 통해 인간의 본질을 정신으로 규정하며 그것만이 ‘인간됨’의 본성적 차원을 가리킨다는 관념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같은 경향은 향후 張系國의 공상과학소설의 창작 이념이 사회학 내용에 더욱 치중되었다는 분석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¹⁶⁾

중국의 1990년대 대표 공상과학소설 작가 王晉康의 《亞當回歸》(1993)는 기존의 ‘인류의 승리’를 기치로 삼는 상투적인 공상과학소설의 틀을 탈피한 작품이다. 작품은 냉동 수면 상태로 성간 우주선에 탑승한지 202년이 흐른 시점에 ‘인류영웅’의 칭호를 받고 무사 귀환한 지구인 王亞當 박사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에 근대 과학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뇌의

14) 정진범, 〈아도르노 역사철학에서의 자연 개념〉,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64쪽 재인용.

15) 黃海著, 앞의 책, 242쪽 재인용.

16) 王衛英, 〈港臺科幻小說的民族風格架构與通俗化之路〉, 《當代文壇》, 2005(4), 84쪽.

동결기간은 임계치(70~80년)를 넘기면 정신이 붕괴되는 단계에 들어서는데, 원형과학(protoscience) 고문이기도 한 王 박사는 뛰어난 의지력과 지혜로 심리적 미망 상태를 극복하고 지구에 무사 안착한 유일한 지구인으로 서술되고 있다.

“.....상당히 안타깝게도 지구에서 적어도 십 광년 떨어진 거리 내에 어떤 지구 생명체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아마도 지구인은 망망한 우주 속에서 유일하게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생명의 꽃 한 송이로서, 조물주가 뛰어난 솜씨로 우연히 만들어낸 다시는 없을 걸작일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를 교만한 나머지 고독하게 만들었다.”¹⁷⁾

사실 王 박사의 지난 날 탐사 여정은 미지의 우주에 대한 인간의 지적 욕구, 호기심, 불안, 공포라는 복잡한 감정을 계기로 촉발되었다 해야 할 것이다. 그 결과 인류는 극단적 이성 추앙을 교리로 스스로의 존재만을 유일한 종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였고 훗날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어리석은 질주를 가속화 할 뿐이다. 그 상세한 세태는 王 박사에게 배정된 신지능인(新智人) 심리 훈련 여교사와의 교류를 통해 시시각각 폭로되고 있다. 특히 王 박사의 시중을 드는 노인 錢人杰과의 은밀한 사적 교류는 극적인 작품 전개를 위한 일종의 도화선이라 하겠다. 실상 錢 노인은 역사상 가장 걸출한 과학자이자 과거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자연 정복의 의지를 드러냈던 인물 중 하나였고, 인간을 대상으로 한 ‘제 2지능 이식술’을 성공시킴으로써 “구시대 즉, 자연인 시대의 종말”과 ‘신시대’, ‘신지능인 시대’의 개막을 이끈 장본인이기도 한 탓이다. 여기서 말하는 ‘제 2지능’은 종전의 인간의 뇌 기능의 한계를 타파하고 기존 두뇌의 천 여배 이상의 기능 향상을 통해 인간의 두뇌 영역을 정복한 신기술

17) 非常遺憾，距地球至少十光年的範圍內，肯定不存在任何類地生命。也許地球人是茫茫宇宙中僅有的一多璀璨的生命之花，是造物主妙手偶成不可再得的佳作。這使我們在驕傲之餘不免感到孤單。王晉康著，《亞當回歸》，《替天行道：王晉康科幻小說精選集11》，時代文藝出版社，2011，254-255쪽.

로서 인간의 우월함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제시되고 있다.

1. 제 2지능을 이식받으려는 모든 이는 반드시 만 15세 이상이어야 한다. 완전하게 뚜렷한 의식 아래 본인 스스로 제 2 지능을 이식 받기를 원함에 싸인, 확인해야 한다.

2. 인체에 이식된 제 2지능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춰야 한다. 10년 후 반드시 자동으로 중지되고, 그 저장 장치가 완전히 자연인 상태에 놓여야 한다. 또한 이 상태는 적어도 100일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제 2지능의 재 작동 여부는 이식받은 이가 반드시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3. 자연인과 제 2지능을 이식받은 신지능인은 완전히 평등한 사회 지위를 갖는다. 혼인할 수 있지만 배태 시 쌍방이 반드시 동시에 자연인 상태에 있어야 한다.¹⁸⁾

錢 박사에 따르면 상기 “제 2지능 이식 3계율”은 “지나치게 총명한 두뇌”가 초래할 잠재적 위험에 맞서 소위 ‘자연인’ 보호라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견고한 방어막이다. 우리는 이를 통해 신지능인과 자연인의 사회적 위계 관계를 차단하고 자연인의 이성적/비이성적인 측면을 모두 지켜냄으로써 자기 보존 충동에 따르는 박사의 본성을 목도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남은 유일한 자연인은 채 백 명이 되지 않고 그들이 모두 당대 일류 생물학자, 생리학자, 과학자 신분의 노인들이라는 상황이 말해주는 것은 자명하다. 게다가 ‘감정 프로그램’ 및 ‘성 프로그램’은 신지능인에게 결핍된 유일한 ‘취약점’이자 그들이 자연인으로부터 전송받고자 하는 유일한 요소로 서술됨으로써 ‘자연성’의 대체불가적 가치가 강조되고 있다. 신지능인에게서 ‘심리적 혼란’과 ‘쓸데없는 감상’ 따위는 ‘몽매한 비

18) 1. 任何第二智能的被植入者必須年滿15歲，在完全清醒的情況下籤字確認本人自願植入第二智能，并由至少一位處於自然人狀態下的完全清醒的成年直系屬副籤。2. 植入人體的第二智能必須具備這樣的功能：在運行十年後應能自動關機，使其載體處於完全的自然狀態，並保持該狀態至少100天以上。第二智能是否重新啟動應由被植入者自行決定。3. 自然人和植入第二智能的新智人有完全平等的社會地位，可以通婚，但受孕時雙方必須同時處於自然人狀態。王晉康著，《亞當回歸》， 앞의 책, 260-261쪽.

이성적 개념'이라는 맥락에서 서술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인간의 전체성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자연성'으로서 역설적이게도 신지능인이 갈구하는 요소이다. 이 같은 상황은 합리적 이성 중심주의 속에서 수반된 생리학적 가치들의 소외 그리고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재고의 길로 우리를 이끈다.

한편 신지능인을 압도할 수단으로 王 박사가 기꺼이 제 2지능 이식술을 받게 되는 결정이 애초에 신지능인인 심리 훈련 여교사의 계획 하에 의도된 결과였음이 폭로되고, 王 박사와 함께 끝까지 신지능인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죽음을 맞이한 錢 노인의 행위와 王 박사의 행위는 “세계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불’의 사용을 거절한 늙은 원숭이 두 마리”¹⁹⁾에 빗대어 풍자된다.

“자연인이 원숭이를 멸하고 신지능인이 자연인을 멸한 것은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었다. ……錢 박사는 민첩한 자연적 지혜를 유지하고 사람들이 감히 우러러보지 못하는 존엄성을 유지하였다. 나는 9년간의 공동생활 속에서 얼마나 나의 아들에게 그의 할아버지의 흔적이 각인될 수 있기를 바라왔던가. 세계는 너무 복잡하다.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할수록 조물주에 대한 의구심만 생겨날 뿐이다. 누가 감히 스스로 역사의 심판자를 자처할 수 있단 말인가?”²⁰⁾

인간이 자연 위에 군림하게 된 것은 근대 자연과학으로 인해 가능했다. 하지만 진보한 인간은 자연인으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즐거움을 상실했고 생명 발전의 토대가 되어온 최고의 가치들은 탈가치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비록 자연인 역시 생존법칙 속에서 신지능인의 지배를 받게 되었지만 그것 역시 넓은 범주에서 자연성에 대한 재현이기에 작가의 고민은 깊

19) 王晉康著, 《亞當回歸》, 앞의 책, 266쪽.

20) 自然人消滅了猿人, 新智人消滅了自然人, 這是不可違抗的。……他始終保持着敏銳的自然智力, 保持着令人仰視的尊嚴。我多麼希望在九年的共同生活中, 我兒子身上會烙下他祖父的印記。世界太複雜了, 越是深刻了解世界, 越是對造物主心懷疑懼。誰趕自封為歷史的評判者? 王晉康著, 《亞當回歸》, 앞의 책, 266-268쪽.

어저만 같 뿐이다.

요컨대 상기 두 작품은 자연과학의 발달에 힘입어 이원론적 사고가 극한으로 치달은 시대 속에서 인간이 스스로 탈자연화의 길을 걷는 과정을 사실감 있게 묘사해 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육체 혹은 정신의 경시는 서구 철학사의 근간이 되는 이분법적 패러다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기존 사유의 전환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결국 두 작품은 근대 비판적 관점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하나의 핵심적 문제 제기를 통해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Ⅲ. 전원 목가적 낭만과 神話를 찾아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세계와 다른 세계를 상정하게 된 것은 어디까지나 더 나은 삶을 향한 집착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²¹⁾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연’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기인한 것으로, 우리는 자연과 화해하고 관계를 재정립함으로써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張曉風의 《瀟渡娜》(1967)와 何夕의 《盤古》(1996) 두 작품은 인간과 자연의 새로운 관계 정립을 위한 시도로서 근본적으로 앞선 작품들과 추구하는 바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이들 작품은 각각 기독교와 불교의 관점에서 근대성에 대한 비판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독특한 차별점이 존재한다.

張曉風의 《瀟渡娜》는 침통하고 무거운 분위기로 충만한 21세기 말 뉴욕을 시공간적 배경으로 삼았다. 작품은 더할 나위 없이 나약하고 지친 모습으로 권태로운 삶을 영위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묘사로 시작되고 있다. 이에 작품은 張大仁과 劉克用이라는 두 주인공이 근본적으로 “고뇌에 찬

21) 이서규, <니체의 탈형이상학적 자연해석에 대한 고찰>, 《범한철학》, 2016, 178쪽 재인용.

삶을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그들이 삶의 한계를 마주하는 태도에 시종일관 냉소적인 관찰을 견지한다. 두 주인공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화교이자 각자의 직업과 삶을 저주한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며 빠르게 가까워진 사이이다. 인간으로서의 무가치성과 직면해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자신의 안위 보전을 위해 이를 좌시할 수밖에 없는 예술가 張大仁, 그리고 생화학자 劉克用的 인연은 그렇게 우연한 대화를 계기로 성사되었다.

먼저 劉克用은 매일같이 실험실에서 행해지는 자신의 일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을 ‘죄인’의 행위로 여기는, 그의 외모만큼이나 모순에 가득 찬 인간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러나 劉克用은 수년간 실험실에서 분투한 끝에 “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여인” ‘판도라’를 창조해내고 이러한 내막을 알지 못하는 張大仁은 판도라와 부부 관계로 거듭나기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작가는 철학, 윤리학 등 인문학적 문제를 아우르는 다양한 물음을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상황에 강력한 경계와 우려의 시선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결국 작가의 의도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가치는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가?”라는 단 하나의 주제로 수렴될 뿐이다.

“옛날 사람들은 비극적 상상력 따위는 없었네.” 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들이 생각해낼 수 있었던 가장 비참한 이야기란 두 사람이 하나의 강을 두고 1년에 한 번 만날 수 있다는 정도였지. 하지만 현재 두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한 사람 조차 평생을 두고도 자기 자신을 발견해 내지 못하지!”²²⁾

수백 명이 밀집한 뉴욕의 한 아파트 안에서 늘 자신의 거주지조차 제대로 찾지 못하는 張大仁의 모습은 그의 정신적 방황과 소외를 상징적으로

22) “古人是沒有甚麼悲劇的想象力的”，我說，“他們所能想出的最慘的故事就是兩人隔了一條河，一年才見一次面。而事實上呢？不要說雖兩人，就是一個人，有時一輩子也沒有被自己尋到啊！”，張曉風，〈潘渡娜〉，姜雲生主編， 앞의 책， 260쪽.

표현해 내고 있다해야할 것이다. 인간의 두뇌를 이용한 자연과학의 끊임없는 발전을 인간이 삶에서 느끼는 불쾌감과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로 이해해볼 수 있을 때, 이들이 느끼는 ‘비극’의 감정은 인간의 모든 면을 수용하지 못함에 따른 무지의 상태를 증후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나는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야하는가?”로 이어지는 張大仁의 끊임없는 독백, 그리고 죽음 앞에 “내게 도대체 무엇이 부족한가요?”라며 울부짖는 판도라의 절규는 자연에 대한 존재론적 위상을 재인식함으로써 ‘현재’를 극복해내야 한다는 암시로 받아들여질 필요가 있다. 특히 인간으로서의 가치, 존재감, 삶의 의미에 늘 회의적인 張大仁에게 늘 중국 초원의 목가가 컷가를 맴도는 것은 인위적 가치들로 충만한 세계와 마주해 나온 자연적 충동으로서 자신의 근원, 귀속처를 향한 인간의 열렬한 본성 의지로 이해해볼 수 있다. 이는 곧 자연 생명력의 약화로 점철된 張大仁의 세계에 대한 우회적인 표현이기도 하다. 이처럼 張大仁에게서 발견되는 비극적 삶은 劉克用的 생명 창조에 관한 인식과 만나 다양한 존재론적 논의로 확장되고 있다.

예컨대, “생명은 간단한 것이네. 여호와도 별 것이 아니라네. 그의 방법은 너무 구식이지. 한 쌍의 남녀가 있어야 하고 10개월의 배태 기간 후 어머니의 고통과 부양, 양육 과정을 거쳐야 하지 않은가. 그런 후 결국은 죽음에 이르지.”, “대부분의 인성은 모두 약하고, 육체적으로도 병에 쉽게 걸릴 뿐더러 정신적으로도 쉽게 상처 받네”, “모성애는 찬송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모성애는 터무니없는 自愛의 연장일 뿐이라네. 다른 형식의 이기심이지.” 등등의 발언들. 이러한 상황에서 본다면 근대적 인간에 대한 劉克用的 비판적 인식은 궁극적으로는 자연을 의심하고 심지어 자연 속의 인간 자신조차도 열등한 존재로 각인시킨 서양적 사유에 대해 작가가 처방한 각성제쯤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게다가 자신이 여호와 조물주가 만든 하와보다도 더욱 뛰어난 판도라를 만들어 냈다는 사실에 흥분하며 “나는 신이고, 삶의 주도자라네. ”, “나는 본래 신이었네. 단지 뒤늦게 깨달았을 뿐이라네. ”와 같은 말을 쏟아내는 劉克用은 지극히 데카당스적

인 인간임을 알 수 있다. 자신을 조물주라 여기지 않는 타인을 거부하고 스스로 정신병원에 갇힘으로써 과민한 자의식과 현실 사회에 대한 반감, 광기를 드러내는 것은 허무주의에서 파생된 근대성의 세례를 받은 인간의 어두운 면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다 해야 할 것이다.²³⁾

...하지만 나는 이 세계에 질서와 법규가 있다는 것이 기뻐네. 大仁, 우리는 항상 마술을 좋아하지, 질서를 깨뜨리는 것을 좋아해. 하지만 사실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평이한 생활원칙을 더욱 갈망하네..... “모든 것이 본래대로 지속되도록 하세, 남성과 여성이 고통을 받고, 수정란이 자궁에서 성장하고, 작고 작은 영아가 모친의 청춘을 다 소진시키도록 하세, 청년이 늙고, 노인이 죽도록 내버려 두세. 이 모든 것은 결코 두렵지 않네, 그것은 아름답고, 신성하고도 장엄하네.”²⁴⁾

인간이 흙에서 생겨나 흙으로 돌아가듯이 판도라도 결국 시험관에서 태어나 시험관으로 돌아갔다. 자신이 인간을 창조해 낸 ‘신’이라 여기며 생명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던 劉克用도 스스로 뭘 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른 채 실험에 몰두해 온 과거를 ‘참회’하며 자신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경건한 마음으로 기쁘게 받아들였다. 사실 작가 張曉風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는 점은 《藩渡娜》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가로막는 주요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작품에 대한 지금까지의 평가는 기독교적 분위기로 충만한 공상과학소설로 요약될 수 있다. 하지만 상기 劉克用的 ‘참회’는 어디까지나 자연을 신에 대한 신앙과 결합시킴에 따

23) 이진우, <21세기와 허무주의의 도전>, 《니체 이해의 새로운 지평》, 서울:철학과 현실사, 2000년, 384쪽 참조.

24) ...但我高興, 高興這個世界有秩序, 有法規。大仁, 我們老是喜歡魔術, 喜歡破壞秩序的東西。但事實上, 我們更渴望一些萬年不便的平易的生活原則。...讓一切照本來的樣子下去, 讓男人和女人受苦, 讓受精的卵子在子宮裏生長, 讓小小的嬰兒把母親的青春吮種盡, 讓青年人老, 讓老年人死。大仁, 這一切并不可怕, 他們美麗, 神聖而莊, 大仁, 真的, 它們美麗、神聖而又莊嚴。張曉風, 앞의 책, 287-290쪽.

른 결과로서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그의 후회와 반성에 따른 자연적 가치에 대한 복귀 시도가 신앙심으로 승화되고 마는 것은 자연에 대한 劉克用的 왜곡된 시선 즉, 자연적인 것을 부정하는 태도를 반증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는 개인적인 것이 소멸되고 신의 존재를 통한 특정한 세계관의 전개로서 역설적이게도 자연적 삶에 대해 적대적인 신앙의 또 다른 측면을 강조해줄 뿐이다. 이에 따라 劉克用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우침에 따른 행복감을 일종의 보상으로, 그가 그동안 비자연적인 행위로 고통 받았던 죄의식을 신에 대한 불복종의 벌로 해석해 버리고 만다. 이처럼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해로운 것을 선택하는 것, 이해관계 없는 동기에 유혹되는 것은 데카당스의 공식에 완전히 부합하는 행위이다.²⁵⁾ 요컨대 劉克用的 이 같은 심적 변화를 종교에 대한 ‘인간의 내면화’²⁶⁾의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면 劉克用的 ‘체념’은 자신의 고통의 원인을 자기 내부에서 찾는 기독교의 비극 정신에 대한 체현으로 이해되어야만 한다.²⁷⁾

何夕의 《盤古》(1996)는 불교 사상을 근간으로 집필된 만큼 《潘渡娜》의 기독교적 승화 정신과 견주어 관찰하기에 적절한 대상으로 제시될 수 있다. 何夕는 중국의 4대 공상과학소설 작가로서 王晋康, 韩松, 劉慈欣과는 달리 개인 영웅주의적 서사를 통한 강렬한 이상주의와 농후한 비극성을 표현하는 특징으로 잘 알려진 작가이다. 이에 그의 초기작 《盤古》도 이 같은 분위기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작품은 우주가 주기적으로 확장과 수축을 반복한다는 가설 하에 쓰인 만큼 불교에서 말하는 세계가 파괴

25) 니체, 백승영 옮김, 《바그너의 경우·우상의 황혼·안티크리스트 이 사람을 보라·디오니소스 송가·니체 대 바그너》, 책세상, 2002, 170쪽.

26) 인간의 모든 본능은 밖으로 발산되지 못하고 자신 안으로 향해짐으로써 인간의 내면화가 시작되는데, 결국 밖으로 향하는 자연적 출구가 막힘으로써 남을 괴롭혀 삶을 확장해 나가고자 하는 본능은 자신을 괴롭힘의 대상으로 삼아 양심의 가책을 고안해 내게 된다. 홍일희, 〈니체 철학에서 생명의 자연성과 인위성-도덕비판을 중심으로-〉, 《범한철학》 제30권, 2003, 138쪽 재인용.

27) 그리스도교에 관한 니체의 사유에 관해서는 다음의 내용을 참조할 것. 프리드리히 니체, 박차국 옮김, 《비극의 탄생》, 아카넷, 2007, 30-34쪽.

되고 아무 것도 없는 空劫의 시기를 모티브로 다루고 있다. 세계가 재창조 되기 전의 상황 속에서 펼쳐지는 두 천재 琴琴과 陣天石 그리고 그들의 벗 歐洪 이 세 명의 청년들이 마주하는 역경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내용은 대략 이러하다.

大劫이 힘들게 찾아오기 전 우리들에게도 햇빛이 맑고 아름답게 빛나던 날들이 있었다.아마도 어떤 의미에서 인생에서 가장 큰 불행은 바로 천재가 되는 일일거야. 인류 가운데 천재는 마치 조개류가 손상을 입고 진주를 생산해 내는 것처럼, 눈부시게 빛나더라도 분명한 병태에 속하잖아. 신은 나와 天石을 천재로 만들려고 계획했던 거야. 우리에게 얼마나 무서운 피가 흐르고 있는지 너는 영원히 모를 거야. 늦은 밤 모두가 조용할 때 나는 마음속에서 그 끓어오르는 소리에 놀라 깨곤 해.”²⁸⁾

初琴은 우주 법칙에 대한 의심으로 天石과 함께 학교에서 영원히 제명당한 이래 ‘0 상태’에 대한 연구를 10년간 지속해 왔다. 歐洪 역시 기존의 물리학에 대한 “법칙 실효”를 선언한 후 과학자들의 격한 비난 속에 과학계에서 제명되었다. 기존의 법칙 실효란 곧 세계에 대한 인간의 이해가 ‘알지 못함’에서 ‘더욱 알지 못함’으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기에 세계에 대한 인간의 이해를 철저히 무너뜨리는 세 청년의 의심과 선언은 오만한 과학자들에게 ‘미치광이’, ‘이교도’의 정신 나간 소리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初琴과 天石은 인류에게 버려진 지난 날, 우주 대폭발 이후 모든 물질이 시작점 ‘0 상태’를 향해 재수축하고 있다는 가설을 밝혀냄으로써 그들만의 놀라운 방식으로 그들의 아이 ‘반고’를 성장시킨다. 이들이 우주가 탄생한 후 30억년이 지나서야 우주에 생명체가 생겨났다는 학설에

28) 在大劫難到之前我們有過很多陽光明媚的日子。...其實我一直以為人生最大的不幸正是成為天才。人類中的天才正如貝類受傷產生珍珠一樣，雖然茫茫炫目但却毫無疑義地屬於病態。造物主安排我和天石成為了這樣的人，你永遠不會知道我們身上流動着一種怎樣可怕的血液，你支部知道在也身人靜的時候，我常常被內心那些巨大的說不清來處的狂熱聲音嚇醒，...，何夕著，《盤古》，《六道衆生：何夕科幻自選集》，長江文藝出版社，2012，185쪽.

근거해 배태기간을 4년으로 잡고 거인 아이를 성장시켜온 것은 우주가 ‘0 상태’에서 평형을 이루는 순간에 맞춰 120억년의 진화를 겪은 반고를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하기 위함에 있었다. 이는 “色卽是空”, “만들어진 세계를 욕망하는 것은 신화를 거절하는 것이다.”는 신념을 토대로, 중생의 ‘고통’을 이해하는 初琴의 믿음 아래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인간의 ‘죄’가 아닌 ‘고통’에 대한 싸움을 논하는 불교에 대한 初琴의 믿음은 부처의 가르침이야말로 인간을 위한 종교라는 깨달음으로부터 나온 것이리라.²⁹⁾ 결국 이들은 역경 끝에 반고를 이용해 우주의 운행 법칙을 바꾸려는 계획을 성공적으로 실행시키고 반고는 천지개벽과 함께 인류를 구해 낸다.

금속 날개가 달린 사람은 현실 속에서 비상하고, 깃털이 달린 사람은 신화 속에서 비상한다. ...현실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것을 신화는 받아들일 것이다. 현실 속에서는 죽는 것도 신화 속에서는 영생할 것이다.³⁰⁾

두 천재는 반고의 탄생을 “신을 만드는 행위(造神運動)”로 명명했다. 그리고 歐洪은 반고의 힘에 의지해 만 년 전 신화가 생겨난 자연 시대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는 광활한 중국 대지를 횡단하는 삶 속에서 자연이 주는 전원적 삶을 유유자적 누리는 신화적 세계를 홀로 침묵 아래 지켜볼 수 있을 뿐이었다. 사실 《盤古》가 쓰였을 당시 신화를 소재로 한 공상과학 소설 작품은 적지 않았지만 이처럼 중국 신화를 당대 우주학 이론과 결합한 《盤古》는 흔치 않은 사례였기에 그 작품성은 더욱 인정받고 있다.³¹⁾

요컨대 《藩渡娜》는 서구 정신문화의 한 핵심적 기제로 작용해 온 플라톤주의, 육체에 대한 편견을 강화시켜 온 기독교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의 시각에서 해석될 수 있는 작품이다. 반면 《盤古》의 근간이 되는 불교

29) 니체, 백승영 옮김, 앞의 책, 236-240쪽 참조.

30) 長着金屬翅膀的人在現實裏飛翔, 長着羽毛翅膀的人在神話裏飛翔. ...現實不能容留的也許神話會容留, 現實裏只能死去的將在神話裏永生. 何夕著, 앞의 책, 204쪽.

31) 董仁威編著, 《中國百年科幻史話》, 清華大學出版社, 2007, 212쪽.

정신은 “중생의 고통은 곧 나의 고통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라는 개인의 정신적인 관심을 신화로 소급해 버리는 것으로 숭고한 인간의 가치를 되새기도록 우리를 인도한다. 지금까지 신화는 인간의 심리적 오류³²⁾가 주는 혼란 속에서 가장 원시적인 사유 양식으로서 부정되어 왔지만 《盤古》가 보여준 제어되지 않는 두 천재의 지적 탕진 그리고 “전원 목가적 낭만”과 “천도순환의 주기적인 반복”에 대한 믿음으로 재현된 신화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복구³³⁾의지를 가리키고 있다. 신화가 ‘반복’과 ‘운명적 필연성’이라는 영원히 반복되는 ‘자연’을 상징화하고 있다면 신화적 에너지를 활성화 시켜서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확고히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늘날 목적 없이 방황하는 현대인을 구원해 내기 위한 유일한 수단³⁴⁾이다.

III. 우주평형의 困惑

혹자는 臺灣의 공상과학소설을 두고 과학기술에 대한 중시는 걸치레에 불과할 뿐 과학 정신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주장한다.³⁵⁾ 그의 말대로라면 黃海의 《銀河迷航記》(1979)도 공상과학소설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작품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인문 정신이야말로 공상과학소설 작품의 주제³⁶⁾라는 주장을 고려한다면 상기 평가는 공상과학소설에 대한 편협한 이해로 간주될 수 있다. 黃海의 《銀河迷航記》는 앞서 다룬 바 있는 張系國의 《超人列傳》과 유사하게 ‘과학’을 인간의 일상을 낫설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취하면서 우주적 차원에 놓인 생명체로서의 인간을 들여다본 작품이

32) 니체, 백승영 옮김, 앞의 책, 115-121쪽 참조.

33) 양해립, 앞의 글, 288쪽 재인용.

34) 프리드리히 니체, 박차국 옮김, 앞의 책, 309-310쪽 참조.

35) 王衛英, 앞의 글, 83.

36) 黃海著, 앞의 책, 14쪽 재인용.

다. 따라서 ‘과학’의 요소는 하나의 개연성을 찾기 위한 도구로 제시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류 문학과 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문제의식의 선상에 있다. 구체적으로 《銀河迷航記》에는 인구 폭발, 식량 부족, 대기 오염, 생태 불균형 등의 문제와 직면하여 수 세기 동안 생활의 영역을 확장해온 인류의 역사를 회고·기술하는 부분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서술된 역사의 궤적을 따라가 보면 지난 날 인류는 지구에서 달나라로 이주하였고 화성과 금성의 대기층을 변화시킴으로써 새로운 거주지를 개척하였다. 이로써 지구의 밀도 높은 인구가 분산되고 인류의 문명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인류의 지적 호기심은 그들이 태양계에 속한 모든 행성을 가만히 지켜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고 이는 결국 인류의 불행의 단초가 되었다.

《銀河迷航記》는 제 2의 지구를 찾아 나선 인간들과 이들이 우주 항해 과정 중 외계인과 맞닥뜨린 에피소드를 주축으로 삼는다. 특히 우주 항해를 위해 탑승한 인간들은 대부분 지구인의 세포 채취를 통한 無性 생식기술로 태어났다는 공통점을 갖는데 이것은 인간의 생명에 대한 경시 문제를 중심으로 인간의 가치 성찰을 위한 계기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우리는 중국 최고의 우주 항해사의 복제 인간이자 우주선의 총지휘관인 羅倫凱, 지구에서 가장 위대한 초능력자의 화신이자 목사로 등장하는 詹森, 그리고 20세기 유명한 영화배우의 화신 伊麗莎白 세 인물의 활약에 주목할 수 있다.

“이상할 것은 없소” 詹森이 말했다. 그는 이미 羅倫凱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 “나는 전능한 조물주 하나 만을 믿소, 그가 없다면 모든 것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요.”...중국 대륙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섬 臺灣, 아름답고 매력적인 곳, ... 수많은 지구인들은 모두 화성의 거주민들을 부러워하며 휴가를 보내기 위해 관광을 오지만 그는 그래도 지구가 좋다. 그는 지난 중국 여행을 그리워하고 있다.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중국인, 그들의 지혜와 투지는 격렬한 개혁 후 수세기 간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중국을 완전히 새로운 면모로 거듭나도록 하였다. 지구는 본래 인류의 원시적 고향이지만

오늘날 지구를 직접 볼 수는 없다. 태양만이 희미하게 요원한 불빛처럼 보일 뿐.³⁷⁾

지난 날 인간은 낙후된 환경 속에서도 심리적, 생리적 압박을 이겨내고 새로운 안식처를 찾아냈다. 이 과정에서 강조된 것은 강인한 생명 정신을 보여준 인간이라는 존재의 위대함이다. 그것은詹森과羅倫凱의 사례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詹森이 돌연 목사가 된 이유가 자신이 ‘독립된 인격’을 유지하고 ‘자유의지’로 스스로 발전하는 데 있듯이, 이러한 요소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이 처한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의미 있는 척도로서 제시되고 있다. 동시에 복제인간羅倫凱는 중국 대륙과臺灣의 아름다운 광경 속에서 대비 서술됨으로써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존재로 강등되어 버리는데, 그것은 다른 생명체에 대한 존중 없이 인간의 우월성만을 지표로 삼는 인간 중심주의적인 발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羅倫凱는 자신이 사랑했던 지구인으로부터 그의 출생과 관련해 모욕을 당했던 일을 회상하면서도 지구를 동경의 “에덴동산”으로 표현함으로써 지구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이어詹森의 생명을 중시하는 엄숙한 입장이 제시되면서 지구와 인간에 대한 작가의 입장은 한층 공고화된다. 요컨대 인간을 복제하는 기술이 자연을 왜곡된 것으로 만든다는 측면에서 일종의 계몽을 상징할 때 인류의 원시적 고향인 지구와 지구인에 대한 동경은 계몽의 민낯을 들추어내는 작업으로 간주될 수 있다. 진보와 계몽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을 지배하려 한 결과 그들이 자연에 더욱 깊숙이 빠져들었음을 밝히는 것은 계몽은 한낱 ‘퇴보’에 지나지 않았음을 폭

37) “沒有甚麼好奇怪。”彥森說。他已經知道羅倫凱新中的話。“我相信有一個全能的造物主，沒有他，一切都不存在。”…看見中國大陸與寶島臺灣，亮麗誘人，…許多地球人都還羨慕住在火星的居民，常常來觀光度假，他還是喜歡地球，他懷念那一次的中國之旅，愛好自由和平的中國人民，以他們的智慧和鬥志、經過一度劇烈的改變後，多少世紀以來的不斷努力，已把中國建設一副全新的面貌。地球本是人類的原始家鄉，如今地球已不可目見。只有太陽成了隱約的遙遠光電。黃海，《銀河迷航記》，姜雲生主編，《銀河迷航記》，앞의 책，427-428쪽.

로하는 것이다.

한편 伊麗莎白는 비과학의 이름으로 사라져야 했던 최상의 가치들이 다시 소환되는 과정에서 논의의 중심에 서게 되는 인물이다. 사건의 발단은 그녀가 동결 상태에서 깨어나 노인이 되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젊은 육신으로 재탄생하고자 한 욕망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후 자연을 거스르려는 영생을 향한 그녀의 욕망은 자신의 젊은 육신을 가진 복제 인간에게 살해당하는 것으로 철저히 사멸되고 만다. 후에 이 사건은 “유토피아의 수호자”로 호칭되는 외계인의 계략으로 벌어졌던 환상임이 밝혀지는데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 야만성, 맹목적인 영생 추구, 잔혹성, 질투와 증오, 탐욕, 이기심 등으로 점철된 人性과 인류의 비극성이 날날이 까발려졌다는 사실에 있다. 외계인은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 자아개조를 통해서만이 생사와 행복과 평화의 진정한 의의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고 중국 대륙의 아름다운 금수강산, 푸르른 생기로 충만한 사랑이 넘치는 지구의 마지막 모습을 뒤로 하고 작품은 마무리되고 있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영생의 가능성, 靈肉의 문제, 정신과 의식을 중심으로 한 인간 규정 등의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한 의도를 밝힌 바 있다.³⁸⁾ 작품의 내용에 근거해 볼 때 작가가 육체의 영생은 믿을만한 것이 못 되고 유일하게 정신의 영생만이 영원한 것이라는 이원론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지만, 복제인간이 육체가 인간의 의지와 근원적 정서의 중추라는 사실 자각에서 생성된 것이라면 이 같이 육체를 통한 창조적 활동은 기존의 가치를 전복하고 비극적 삶을 극복하기 위한 계기로서 독해될 필요가 있다.

일찍이 劉慈欣은 何夕의 작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우리는 공상소설 속의 상상력과 창의성에 감동받을 수 있다. 다른 작품 속에서는 심오한 철리를 깨달을 수 있고 또 다른 이야기를 통해 정교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에 이끌릴 수 있다. 하지만 한 편의 소설에서 동시에 이러한

38) 黄海, 《銀河迷航記》, 앞의 책, 175쪽.

놀라움을 경험하려면 何夕의 작품 한 편이면 된다. 이러한 것들은 공존하기 어려운 특징이지만 何夕의 작품 속에서는 완벽하게 결합해 공상과학소설이 새로운 경지에 이르도록 한다.”³⁹⁾ 이 같은 何夕에 대한 평가는 何夕의 중편 《田園》(1999)을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는 특징이다. 이 작품의 원제는 《傷心木》으로 20세기 후반 ‘新’이라는 용어가 출현한 이래 이미 네 번째 ‘新’ 경제 시대에 들어선 풍요의 세계를 배경으로 식량 문제를 주체화 하였다는 점에서 독특한 설정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작가가 고향에서 경험했던 굶주림과 아사한 조부모에 대한 기억을 모티브로 한 만큼 작가는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 즉, ‘근원(根)’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밝힌 바 있다.⁴⁰⁾ 이에 작품은 극도로 진화된 세계 속에서 홀로 인류의 집단 운명을 짊어지고자 하는 주인공 何夕의 영웅주의적 사명감으로 승고한 분위기에 흠뻑 젖어있다. 뇌 영역에서 천재로 불리던 주인공이 막대한 경제적 수혜를 마다하고 전원 목가적 환경 속에서 인류를 위해 홀로 분투한다는 내용은 외에도 중국의 오래된 지리서 山海經에서 언급된 바 있는 목화를 이용해 세계를 변화시키고자 한다는 설정으로 신비로운 분위기까지 덧입힌다. 사람들에게는 천만 년 동안 자유롭게 성장해 온 목화가 ‘신화’로 여겨지고 있는 만큼 주인공은 이 같은 자신의 행위를 “조물주의 요술 지팡이를 이용해 인간 세계로 신화를 가져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何夕의 눈빛은 환히 빛나며 사망의 초록빛을 주시하고 있었고 말투는 중국처럼 오래된 전설을 서술하듯 차분했다. ... 산해경, 곤륜산, 목화..... 그녀는 이러한 신화 속에서나 나오는 명사가 何夕의 입에서 끊임없이 흘러 나오는 것을 보았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신화이다. 하나의 소리가 陳橙의 머릿속에서 말했다.⁴¹⁾

39) 董仁威編著, 앞의 책, 227쪽.

40) 같은 책, 222쪽.

41) 何夕目光灼灼地注視着四面的綠色, 口吻平靜地叙說那個幾乎與這個國度同樣古老的傳說. ...山海經, 崑崙山, 木禾.....她聽見這些只有神話裏才有的名詞從何夕的口裏不斷流淌出來. 這些都是神話, 一個聲音在陳橙腦海裏說. 何夕著, 《田

陳橙은 한때 何夕과 함께 수학하며 뇌 영역에서 두각을 드러냈던 인물로 현재는 세계적인 뇌 전문학자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여성으로 등장한다. 처음 그녀는 “세계를 바꾸기 위해 사고한다.”를 기치로 何夕이 지난 수년간 해온 일이 고작 전원생활이라는 사실에 황당함을 금치 못하지만 오랜 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진화된 세계에 적응하지 못하는 잉여자로 남아있던 何夕의 형상도 ‘신화’ 라는 두 글자의 등장과 함께 변화하기 시작한다. 사실 何夕이 “역사의 수레바퀴에 의해 멀리 뒤쳐져 버린 전원 목가적 환경” 속에서 주력해 온 것은 인간에게 있어 가장 보통의 원시적인 상품 ‘식량’이었지만,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그가 개발해 낸 ‘양품119’는 세상에 존재하는 식물의 모든 장점을 내포하고 있어서 한번 파종하기만 하면 번잡한 노동 없이도 수백 년간 수확이 가능한 그야말로 ‘기적’의 식량이다. 何夕에게 있어 그것이 주는 궁극적 의미는 자연이 선사한 선물을 인류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줌으로써 미래의 인간들이 어디에서든 자연과 융합 일체되어 다시는 분리되지 않도록 하는 것 즉, ‘신화’의 구현이다.

陳橙은 갑자기 막막해졌다. 상상외로 이 문제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눈길은 시험관에 고정되었다. 그렇다. 그 사람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그녀에게 주었다. 그 사람은 신화 속의 목화를 인간 세계로 가지고 왔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완벽해서 일찌감치 신화를 저버린 세계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⁴²⁾

何夕은 자신이 개발한 목화가 인간의 이기심으로 소멸되지 않고 온 세상에 널리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양품 119’에 대한 방역 작업을 진행하고자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은 세계에 ‘희망’을 남겨두고 싶다는 그의 결심

園》, 앞의 책, 304쪽.

42) 陳橙陡然一滯，竟然不知道該怎樣回答這個問題。她的目光停留在了試管上，是的，那個人將決斷的權利交給了她，那個人將神話裏的木禾帶到了人世間，但是很快便發現它太完美了，機乎不可能在這個早已摒棄了神話的世界上生存。何夕著，《田園》， 앞의 책, 321-322쪽.

으로 인해 무산되고 만다. 陳橙이 과학적 세계와 작별한 何夕이 남기고 간 ‘양품 119’를 바라보며 지금까지 자신이 전념해 온 연구의 가치를 두고 혼란에 빠지는 것은 전원 속 무한한 확신과 자신감에 젖은 何夕의 태도가 자연의 전체성 그리고 신화란 인간의 전체이자 인간의 존재 그 자체라는 사실을 증명해 내고 있었기 때문이라. 모두가 뇌 영역의 발전을 외칠 때 何夕이 홀로 견지한 생존방식과 연구 태도는 자연 생명력에 대한 긍정과 존중이라는 오늘날 과학이 갖는 가치의 척도를 제시하고 있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순간 陳橙이 흘리는 눈물은 충족되지 않는 인간의 인식 욕, 이것이 지시하는 신화의 상실, 이성의 몽매에 대한 깨우침이 불러온 회한의 눈물쯤으로 이해해볼 수 있겠다.

요컨대 《銀河迷航記》는 비교적 투철한 인문 정신을 근간으로 과학 발전의 부정적 영향과 인류 사회가 마주하게 될 현실적 문제에 집중함으로써 심오한 인생의 철리를 반영한 작품이다.⁴³⁾ 일찍이 작가 黃海는 공상과학의 서사는 세계에 대한 인식 변화로서 그 내적 세계는 진정성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⁴⁴⁾에 기반해 독자의 이목을 끄는데 성공한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이처럼 《銀河迷航記》와 《田園》은 과학이라는 도구를 사용해 이 세계를 계몽이라는 이름으로 부단히 바꾸고자 하는 인류의 어리석음을 직시한, 예리한 통찰력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이에 따라 작품 속에서 자연은 변증법적으로 고결한 존재로 승화되고 있지만 인류는 삶의 가혹함과 자연적 충동이 빚어내는 갖가지 비도덕성과 마주해 우리 삶에 주어진 풍요가 현재의 비극을 초래하였다는 깨우침으로 곤혹스러워할 수 있을 뿐이다. 이제 이들은 기존의 이원론적 위계질서를 타파하고 자연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야만 한다.

43) 黃海, 앞의 책, 233쪽.

44) Norman Spinrad ed., *Modern Science Fiction*, New York: Anchor, 1974, 4-5쪽 참조.

IV. 결론

본 논자는 當代 중국 공상과학소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비결정성, 사회 불평등에 따른 기존의 모든 가치를 부정하는 방향에서 근거하고 생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일종의 인간의 자기 보존을 위한 본질적 충동이자 인간과 자연의 ‘부조화(Imbalance)’의 징후로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찾아가는 니체의 생태주의의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는 주제이다. 물론 이처럼 중국의 공상과학소설을 징후적으로 바라보려는 시각은 공상과학소설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지만 소설이 어디까지나 인간의 본질에 대한 질의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이 또한 다양성의 측면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문제이다. 이에 따라 본 논의에서는 먼저 20세기 후반의 중국과 臺灣의 대표적인 공상과학소설을 대상으로 자연 생명과 과학 기술에 대한 작가들의 사유를 따라가 보고자 하였다.

요컨대 이들 작품은 공통적으로 인간의 진보를 위해 도구적 가치로 전락해 버린 인간의 자연 생명력을 논한다. 그것은 인간에 의해 소외되어 버린 자연 즉, 망각된 자연에 다름 아니다. 니체는 이것이 인간의 자연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으며 근본적으로는 서구 정신문화의 이원론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 과정에서 인류는 이성성에 대적하는 모든 의식되지 않은 것들을 열등하고 소멸되어야 할 것으로 인식하였지만, 결국 모든 자연은 인간과 조화를 이루고 긍정되어야 할 대상으로 자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들 작품에서 발견되는 특징이다. 따라서 그 안에서 발견되는 비극성은 인간이 자신의 모든 부정적인 측면까지도 삶의 필연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야 하는 사실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삶의 가혹함에 직면하여 기독교 혹은 불교에 천착함으로써 현재를 극복하려는 인물들이 관찰되기도 하였다. 특히 ‘신화’ 세계의 소환은 계몽주의가 선사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세계를 극복하기 위한 최

상의 대안으로서 신화와 계몽이 내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신화에 의해 설명되었던 자연의 반복과 운명적 필연성이 자연에 지배받는 인간의 상황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한다면, 과학에 맹목적 지배를 받는 계몽의 시대 역시 중국에는 신화시대에 대한 반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⁴⁵⁾ 이 같은 맥락에서 중국 본토 및 臺灣 공상과학 소설에 나타나는 민족의식을 계몽시대를 마주한 인간의 자각적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다면 이 또한 자연으로 돌아간 계몽의 신화성을 변증법적으로 제시하는 행위로 이해될 수 있다.

혹자는 공상과학소설 속에서 상징적으로 묘사되는 미래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當代 현실에서 마주하는 인식 상의 곤혹에 근원한다고 주장한다.⁴⁶⁾ 나아가 20세기 중국 공상과학소설의 발전이 지체된 원인을 가치관념의 모호성에서 찾는다.⁴⁷⁾ 지금까지 본 논자는 이 같은 관점에 근거해 1990년대의 중국 공상과학소설을 시대적 흐름에 편승한 작가들이 개척해 낸 새로운 공간으로 사유함으로써 그것이 오늘날 지니는 문학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재조명 하고자 했다. 이 작업은 인간과 자연의 생태학적 조화를 위한 시도가 향후 21세기 新生代 작가들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발전해 가는지 고찰함으로써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 텐데 이는 다음을 기약하며 글을 마친다.

< 참고문헌 >

노성숙, 〈계몽과 신화의 변증법〉, 《철학연구》 제50집, 2000.

45) 신화는 계몽에 대한 대립이자 계몽의 귀결로서 이해된다. 신화와 계몽의 변증법에 대한 분석은 다음을 참고할 것. 노성숙, 〈계몽과 신화의 변증법〉, 《철학연구》 제50집, 2000, 234-240쪽.

46) 이서규, 앞의 책, 184쪽 재인용.

47) 汤哲聲, 〈20世紀中國科幻小說創作發展史論〉, 《文藝爭鳴》 제6期, 2003, 63쪽.

- 니체, 백승영 옮김, 《마그너의 경우·우상의 황혼·안티크리스트 이 사람을 보라·디오니소스 송가·니체 대 마그너》, 책세상, 2002.
- 양해림, 〈니체와 老子의 생태학적 자연관〉, 《철학》 제69집, 2001.
- 이서규, 〈니체의 탈형이상학적 자연해석에 대한 고찰〉, 《범한철학》, 2016.
- 이진우, 《니체 이해의 새로운 지평》,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0.
- 정진범, 〈아도르노 역사철학에서의 자연 개념〉,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프리드리히 니체, 박차국 옮김, 《비극의 탄생》, 아카넷, 2007.
- 홍일희, 〈니체 철학에서 생명의 자연성과 인위성-도덕비판을 중심으로-〉, 《범한철학》 제30권, 2003.
- 홍일희, 〈인간과 자연의 관계정립의 문제〉, 《철학논총》 제37권, 2004.
- 董仁威編著, 《中國百年科幻史話》, 清華大學出版社, 2007.
- 何夕著, 《六道衆生: 何夕科幻自選集》, 長江文藝出版社, 2012.
- 黃海著, 《臺灣科幻薪火錄(1956-2005)》, 五南圖書出版社公司, 2007.
- 姜維端, 〈這麼多年, 中國科幻走上了一條和西方主流科幻不同的道路?〉, 《澎湃新聞》, 2017.
- 姜雲生主編, 《臺灣科幻小說大全》, 福建少年兒童出版社, 1994.
- 李琳, 謝家順, 〈張曉風: 用詩人情懷傳達人文意識-重讀臺灣第一部科幻小說《潘渡娜》〉, 《華文文學》, 2008.
- 劉秀美, 〈空間移動下的想像與認同-論張系國小說中“地方”意義的形塑與轉折〉, 《現代中文學刊》, 2008.
- 劉興詩, 〈幻想的歷程《中外科幻小說大觀》〉, 上海少年兒童出版社, 1994.
- 湯哲聲, 〈20世紀中國科幻小說創作發展史論〉, 《文藝爭鳴》 第6期, 2003.
- 王晉康著, 《替天行道: 王晉康科幻小說精選集11》, 時代文藝出版社, 2011.
- 王衛英, 〈港臺科幻小說的民族風格架构與通俗化之路〉, 《當代文壇》, 2005(4).
- 許達然, 《苦悶與象征: 六〇~七〇年代臺灣社會和文學》, 臺灣文津出版社, 2007.
- 張系國編, 《張系國自選集》, 臺灣黎明出版社, 1982.

Han Song, “Chinese Science Fiction: A Response to Modernization”, *Science Fiction Studies*, 40.1,(2013).

Norman Spinrad ed., *Modern Science Fiction*, New York: Anchor, 1974.

Song Mingwei, “Variations on Utopia in Contemporary Chinese Science Fiction”, *Science Fiction Studies*, 40.1,(2013).

Tidhar Lavie, *Science Fiction, Globalisation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oundation: The International Review of Science Fiction, vol.89, 2003.

<Abstract>

Comparing Chinese science fiction in the 1980s and 1990s, it should be said that works in the 1980s were at a clear opposite point to the 1990s trend of work, which was exposed to the active trend of reform and opening up. This is because if Chinese science fiction empirically shows futility in the 1980s, socialist ideals, and Confucian traditional values disappear and pluralistic values begin to emerge in the 1990s. Therefore, the 1990s can be regarded as the starting point for announcing the new literary trend of Chinese science fiction. Nevertheless, since modern times, Chinese science fiction has not easily escaped the shadow of the perception that it is a means of enlightenment for the transfer of scientific knowledge. However, because the story of criticizing the country or system is still taboo amid the ever-increasing censorship and control of the Internet in China, and that many Chinese science fictions originate from the Internet, it is not enough to simply lead to a political position. In short, since the 1980s, Chinese science fiction has outlined

various aspects amid the inevitable influence on public cultural factors. However, despite international interest in Chinese science fiction, related research in China is mainly focused on late Qing China works, and considering the works themselves, it is understood that Western academia has been actively conducting research. Then, if we have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faced by the Chinese science fiction community, which is in self-conflict today, and seek the development of Chinese science fiction, where should the discussion begin? The researcher believes that an integrated analysis should precede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Hong Kong and neighboring Taiwan, considering the nature of today's literature and China's special cultural and social background that crosses boundaries. This process can be a useful way to reflect on the literary location and meaning of Chinese science fiction and to grasp the limitations and significance revealed in Chinese science fiction. It has been pointed out as a regret that the works of Taiwanese and Hong Kong artists cannot be found in numerous Chinese science fiction books published on the Chinese continent so far, and the public comparative review of the three regional works appearing in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is of great significance in many aspects. First of all, this discussion aims to derive awareness of the ideological framework of nature and myths in these works and analyze how the artist tried to resolve the corresponding ecological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nature. This is no different from exploring the intrinsic way of thinking of the Chinese.

Key Words : 중국공상과학소설(Chinese science fiction), 니체(Nietsche), 생태주의(Ecologicalism), 비극성(tragedy), 자연 개념(concept of nature), 계몽의 변증법(the dialectic of enlightenment), 신화(myth)